

# 익산시, 백제 왕궁 재현 나선다

2028년까지 408억원 투입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본격 추진

백제 금마저 왕궁이 후손들 앞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다.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백제문화의 가치를 향유할 복합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왕궁 복원사업이다. 2028년까지 총예산 40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되며 본격 추진의 신호탄을 쏘았다.

금마저는 백제 시대에 익산을 부르던 옛 이름이다. 대한민국 4대 고도인 익산은 국내 유일의 백제 왕궁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금마저 왕궁 복원의 핵심이 되는 것은 실체가 남아있는 왕궁 유적이다. 왕궁정전과 왕궁조경(정원·후원), 참전, 금·유리 공방, 화장실, 부엌 등 주요 건물이 예전의 모습으로 재현된다. 복원에는 백제 시대의 궁성 배치방식과 건축·조경 기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새로 조성할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에서 공연과 전시, 음식·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해 한류 열풍의 원천이 되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 조감도

응, 국내의 방문객 유입을 촉진한다.

미륵사지, 제석사지, 쌍릉, 익산토성, 금마도 토성, 미륵산성, 연동리석조여래좌상 등 익산 지역 핵심 유적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세계유산 고도로서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포부를 품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적극 협조한 덕분에 백제 왕궁 금마저 역사 문화공간 조성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 유적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백제 문화권 관광 활성화 견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에 꼭 사용하세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사용 독려... 12월 31일 이후 잔액 국고 반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기한에 따른 적극적인 사용을 독려했다.

28일 재단에 따르면 12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환된다는 사실, 현재 도내에서 발행된 문화누리카드의 미사용 금액이 총 18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누리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북문화누리' 블로그(blog.naver.com/jct0419)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또는 인스타그램(@jctmunhwa\_nuri)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누리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외부 활동이 힘든 이용자를 고려해 전북문화누리 상품안내책자를 보면서 원하는 상품을 전화로 주문해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전화 결제도 가능하다. 전북문화누리 상품안내책자는 전북문화누리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blog.naver.com/jct0419)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문화누리카드 11만원 전액 미사용자는 내년 자동 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다양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쇼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과 소독별 문화적차와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1인당 연간 11만원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교육문화팀(063-230-7451~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올해 8171명 공연 관람

총 36회 무형유산 공연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명인오마주, K-무형유산 페스티벌 등 총 36회에 걸쳐 공연을 펼쳐 모두 8,171명이 무형유산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 올해 무형유산공연 관람객의 종합만족도는 93.0점으로, 세부적으로는 공연 콘텐츠와 관람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9월 26일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K-무형유산페스티벌>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 '사기장'과 '매듭장'의 실제작업을 현대무용가들과 함께 공연화한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을 선보여 861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또 10월 13~14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열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



무형유산축전 기획공연 전통연희판놀음 사진

산의 가치 확산을 위한 '탱고(Tango)' 초청 공연이 열려 총 3회에 걸쳐 944명의 관람객에게 남미의 정열적인 춤과 음악을 즐겼다. 이외에도 9월 1~10일까지 '2023 무형유산

축전'이 열려 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초청 및 합동공연과 작품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의복 영상(미디어 파사드),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립합창단은 지난 28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린 제29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 진안군립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 정기연주회 성료

진안군립합창단(단장 김종필 진안부군수, 지휘 박영근)은 지난 28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열린 제29회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군민 200여명이 마이홀 좌석을 가득 채웠으며 합창단이 가곡,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노래해 관객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진안군립합창단은 지난 1998년에 창단돼 바

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합창제 등 행사에 출연하는 등 군립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특히, 공연에는 소프라노 임세경, 명창 조종달, Raddoppia(남성3중창단)이 특별 출연해 연주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진안군립합창단과 함께하는 무대를 꾸며 큰 울림 있는 감동을 선사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